

# 낙농 현안 타개는 낙농가들의 단합으로 부터...

희망의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우리 낙농가들은 희망을 찾기에 아직 넘어야 할 산적한 과제가 눈앞에 놓여있다. 단지 생산에만 전념하여 열심히 해온 결과치고는 너무나 큰 고통을 떠안아야만 했던 지난해였기 때문이다.

우리 청년분과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잉여원유로 불거진 우유 수급불균형의 문제를 낙농가에게 떠넘기려는 모든 행태에 대해 이를 단호히 배격하고 낙농인의 권익을 보호코자 부족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 활동해왔다.

지난해 우리는 4월초 원유가 5%인하계획에 대한 반대입장으로 농림부와 진흥회에 항의문을 보내고, 5월 7일 낙농진흥회를 항의 방문하였다. 이에 진흥회에서는 5월 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언제까지나 낙농업이 온실속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원유가격도 시장원리에 따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는 5월 29일 반박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기자회견을 동원해 비열한 짓을 일삼는 진흥회에 대오각성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7월 12일(금) 청년분과위 정기회의에서는 원유가 인하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낙농



이 승 호 / 청년분과위원장



**현재 우유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꼬여있다. 우리는 제도적인 소비 확대 대책마련과 감산대책 등을 외면한 채 낙농가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청년분과 위에서는 금년 한해도 낙농가가 안심하고 남유할 수 있도록 대정부, 국회 방문활동 등을 통해 더욱 더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진흥회의 수급불균형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제시할 것과 제도적인 소비확대 대책 마련, 모조분유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또한 9월 28일, 30일 진흥회 이사회시 진흥회를 방문한 낙농

가들을 경찰을 동원하여 참관을 저지시킨 것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과연 진흥회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 기구인지 되묻고 해명과 사과조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진흥회는 10월 9일 이사회에서 낙농가대표들의 불참속에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강행 처리하였고, 이에 우리는 10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채택은 낙농말살 정책으로 결사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아무런 공론화 절차 없이 벼랑 끝으로 낙농산업을 끌고가는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였다.

우리는 10월 31일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철폐를 위한 전국낙농인대회 때 과천 정부종합청사 운동장에 모였던 7,000여 낙농가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우리 청년낙농인들은 낙농문제의 개선을 위한 현장 낙농가의 목소리를 대변해 나갈 것임을 “전국 낙농인에게 드리는 청년낙농인들의 다짐”을 통해 밝히고 낙농가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앞장서 낙농산업의 꽃꽂한 “지킴이”가 될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

우리는 대정부 방문활동으로 11월 12일 농림부에 우유수급 안정방안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진흥회를 항의방문하여 명의



식 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무의미한 회담이었다고 결론 짓고 성명서를 발표하여 잉여차등제 철폐와 진흥회 해체, 진흥회 해체 시 기존 진흥회 납유농가의 납유처 보장, 모조분유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11월 23일 축산국장과의 면담에서는 잉여차등제 철폐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집유조합협의회에서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낙농가간 이간질과 분열조장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위선적 행위를 일삼는 조합장들에게 엄중 경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대국회 방문활동으로 12월 6일 한나라당 이규택원내총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낙농현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긴급건의문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12월 10일 당차원에서 정책위의장과 협회 대표간의 우수수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협회가 그동안 건의한 제도적인 소비확대방안과 감산대책

(Buy Out), 북한에 분유 보내기 방안 등에 대해 당에서 긍정적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모조분유 수입 억제대책, 조사료부족문제, 유업체의 신제품개발과 홍보대책, 유가공조합 및 시유생산 업체 지원을 통한 우리우유지키기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우리는 12월 17일 농협중앙회를 방문하여 문선창상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진흥회 이사로서 잉여원유차등가격제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 집유조합협의회 대정부 건의문에서 농협중앙회를 낙농가 대표단체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활동에 대한 입장, 각 도에 하나씩이라도 중앙회 차원에서 지원하여 유가공조합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줄 것, 모조분유 수입억제 대책 마련 등에 대해 농림부에 적극 건의하여야 함에도 외면하고 있는 문제,

농가부채 문제 등 낙농현안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등 지난해 우리 청년낙농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활동해왔다.

우리는 진흥회의 잉여원유차등가격제 강행은 과잉생산을 유도한 정부와 진흥회의 책임은 묻어둔 채 낙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영세 낙농가 뿐만 아니라 모든 낙농가들이 아무런 대책없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제도이며, 낙농가들은 기본적인 생활여건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는 낙농가의 도산으로 이어져 결국은 낙농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이의 철폐와 제도적인 대책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유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꼬여있다. 우리는 제도적인 소비확대 대책마련과 감산대책 등을 외면한 채 낙농가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청년분과 위에서는 금년 한해도 낙농가가 안심하고 납유할 수 있도록 대정부, 국회 방문활동 등을 통해 더욱 더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낙농현장의 뜻있는 젊은 지도자들이 청년분과위로 뭉쳐서 협회발전과 낙농가 단합을 통한 낙농현안 타개에 함께 전진하는 희망찬 새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

〈필자연락처 : 011-767-5056〉